

마약류 오·남용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 손 봉 선**

I. 서론

마약류 등의 남용은 시대와 세대 그리고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고 남·여의 구분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의 오·남용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약물남용은 비단 우리나라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일본의 청소년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한 연구기관은 조사 결과

일본의 청소년 1%, 즉 100명 중 1명꼴로 각성제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¹⁾ 미국에서도 청소년의 마약 사범이 지난 5년 동안 2배로 급증했다고 FBI(미연방 수사국)가 발표했다.²⁾

특히, 미국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1970년부터 마약 퇴치를 위하여 자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단속과 처벌 그리고 치료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크린턴 행정부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였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예인³⁾을 비롯한 사회 중산층 이상에서 대마초를 비롯한 각성제인 히로뽕 등 각종 마약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한외마약과 유해화학물질은 주로 청소년층에서 남용되고 있다. 마약류

* 본 논문은 2003년도 전라북도 지원비에 의한 연구임.

** 광주대학교 경찰 법·행정학부 교수

1) 세계일보, 2001. 8. 21.

2) <http://www.joins.com/LA>, 2003. 6. 17.

3) 경향신문, 2004. 7. 17. 수원지검 남부지청 형사 2부는 16일 대마초를 흡연한 영화배우 겸 탈렌트 김부선씨(본명 김근희·42·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범죄는 199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에는 전년 월드컵 등 각종 행사 관련한 단속의 영향으로 마약류 공급선이 와해되어 전년 5,088건보다 27% 감소한 3,713건이 발생하였으나, 1995년 이후 국내 마약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사범은 1,869건이 발생하여 전체 마약류 사범의 50.3%를 차지하여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⁴⁾

우리나라에서 남용되는 마약류는 코카인, 모르핀, 히로뽕, 대마초, 엑스타시, S정, Yaba, GHB 등 선진국형 남용약물이 거의 모두 남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 현황에 의하면 의료인, 연예인, 유흥업소종사자, 노동자, 종교인, 고소득층, 저소득층 등 직업이나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속만 강화하고 정부와 사회단체에서는 말로만 약물남용의 심각성을 외치고 있으나 이렇다 할만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이나 재활치료 등 대책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971년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은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공적 제1호는 마약(Drug abuse is the No 1 of American public enemy)' 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1972년부터는 마약을 단속하는 전문기관인 마약감시청(DEA)을 신설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문가 양성, 예방교육, 단속, 재활치료 등 각 부문별로

나누어 세계적인 정책으로 대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상용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도 미국의 경우와 같은 마약으로 인한 큰 사회적 어려움을 격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대처해야 된다. 마약류의 남용은 단 한번의 사용으로 중단하기 어렵고 내성, 의존성, 금단증상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의 증가 추세로 미루어 볼 때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상황이다. 이러한 마약류 등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각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소년의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모두가 연계하여 마약류 등 남용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남용 실태를 조사하여 장·단기적인 예측 인자를 파악하여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마약류 등 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4) 경찰백서, 2004, 147면

II.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1. 설문내용

본 설문은 약물남용의 여부와 전북도민의 환경 또는 환경과 관련 유무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대상인 도민의 성별, 대인관계, 남용관계, 섭취량, 해독의 인식여부, 해독에 대한 이해정도, 학력, 직업, 약물남용의 유무, 사회의 영향 등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표준화된 설문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국내외에서 실시되었던 각종 설문조사 문항을 검토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 조사방법

1) 설문방법

전라북도 시·군 현황을 참고하여 인구수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나누고 시·군 지역에 출장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도민을 접견하고 설문하기 위하여 각 시청·군청·경찰서·보건소 등의 민원실과 시외 버스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 역 등에서 무작위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 설문의 범위

- (1) 조사대상: 전북 도민 20세 이상의 성인 남·여
- (2) 조사지역: 전북지역의 각 시/군
- (3) 조사방법: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 면접조사
- (4) 표본추출: 비례할당추출(PQS), 시/군 인구기준 할당⁵⁾
- (5) 유효표본(총표본): 2,239명(3,000명)

5) 2002년 전북통계연보에 의한 인구를 참조 전라북도 총인구는 2,013,923명, 남자 998,917명, 여자 1,015,006명을 남녀별로 나누어 남자 1,537명, 여자 1,463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외 5개시와 완주군 외7개 군을 대상으로 인구별, 남녀 별로 나누어 표본을 추출하였다.

(6) 조사기간: 2003. 7. 11~2003. 7. 23.

3) 응답자특성분석

구 분		사 례 수(명)	비 율(%)
성 별	남	1,190	53.1
	여	1,049	46.9
연 령	20대	831	37.1
	30대	609	27.2
	40대	505	22.6
	50대	294	13.1
학 력	초등학교 졸	65	2.9
	중학교 졸	200	8.9
	고등학교 졸	991	44.3
	대학교 졸	983	43.9
직 업	전문직	219	9.8
	회사원	314	14.0
	자영업	331	14.8
	공무원	252	11.3
	농/임/축/수산업	89	4.0
	학 생	462	20.6
	주 부	266	11.9
	기 타	306	13.7

4) 입력 및 통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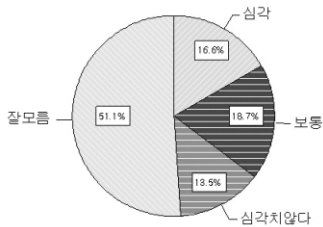
지역별 설문조사 후 수집된 자료를 모두 전산입력 처리하였으며 전산 통계분석을 통한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만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또는 분산분석(ANOVA) 등은 지면의 한계, 그리고 이해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차이분석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이며 본 조사의 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1\%$ 로 추정한다.⁶⁾

6) 한계점은 전북도민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표본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 국민의 실태로 일반화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 시·도별 약물의 남용 실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시·도별 마약류의 확산정도가 지역별, 대도시, 소도시, 농촌 등이 모두 같다고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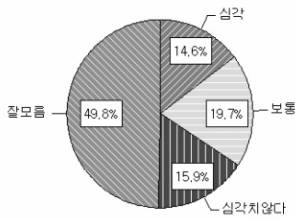
1. 조사내용과 분석

1)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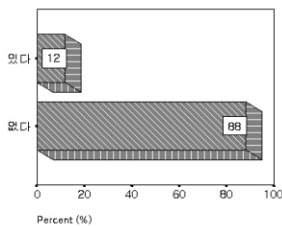
전라북도 지역의 청소년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심각하다(16.6%), 보통이다(18.7%), 심각하지 않다(13.5%), 그리고 잘 모르겠다(51.1%) 등으로 응답하였다. 전북도민의 대부분은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성인의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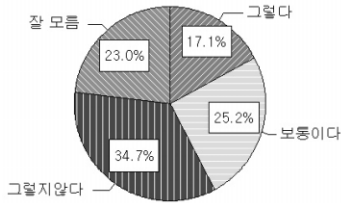
성인의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심각하다(14.6%), 보통이다(19.7%), 심각하지 않다(15.9%), 그리고 잘 모르겠다(49.8%)로 응답하였다. 상당수의 주민들은 전북지역의 마약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3) 주위에서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 사례를 본 경험의 유무는?



주위에서 총 설문응답자의 12%가 마약류의 불법유통 및 오·남용 사례를 보았다고 응답하였고 88%가 본 일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도민의 12%에서 마약류 오·남용의 사례를 보았다는 것은 마약류가 전 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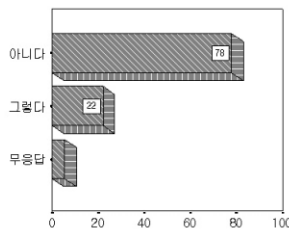
4)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그렇다(17.1%), 보통이다(25.2%), 그렇지 않다(34.7%), 잘 모르겠다(23.0%)로 나타났다. ‘그렇다’가 ‘그렇지 않다’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서 사회 구성원이 마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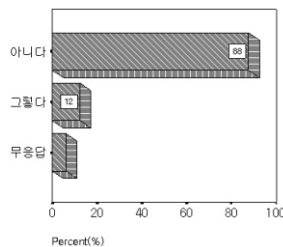
5) 마약류에 대한 인식의 정도?

(1) 마약류는 사용하다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는지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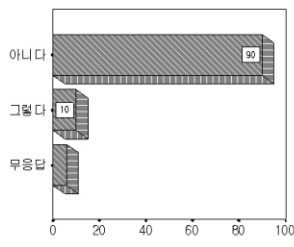
마약류는 사용하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2%였고,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전체 응답자의 78%였다. 대부분의 도민들은 마약류는 끊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2) 주위 사람이 마약류를 사용한다면 모른척할 것인지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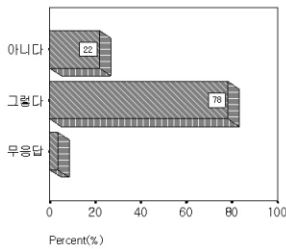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87.5%)이 모른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응답자의 12.4%만이 모른척할 것이라고 답변하여 마약류의 퇴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기회가 생긴다면 마약류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욕망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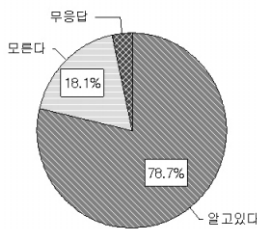
마약류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10.0%,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9.9%로 마약에 관해 일부가 호기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회가 되면 마약류의 오·남용에 빠질 위험성을 포지 하고 있다.

(4)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의 인지여부는?



끊기가 어렵다는 사람이 78.08%, 쉽다고 판단한 사람은 21.92%로 응답하여 일부의 사람들이 마약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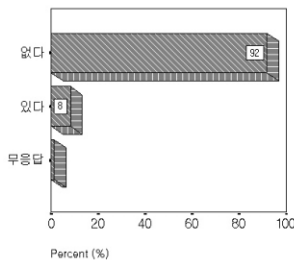
6) 유해화학물질 등이 마약류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인식정도는?



응답자 중 78.7%가 유해화학물질이 마약류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18.1%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2%였다. 이는 유해화학물질이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마약류에 대한 계몽과 홍보의 효과가 있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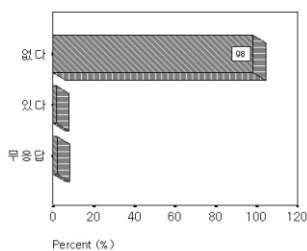
7) 다음과 같은 약물을 사용해 본 경험의 유무

(1)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본 경험의 유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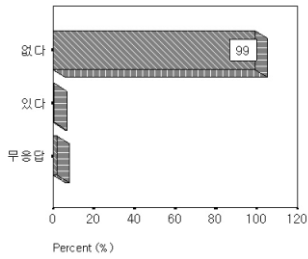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91.8%였고,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8.2%로 나타났다. 소수이지만 유해화학물질을 경험한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2) 대마초 흡연경험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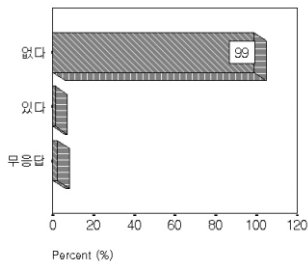
대마초를 흡연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98.2%,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8%로 파악되었다. 대마초는 소수에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확산의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연예인, 유학생 등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검거되는 것으로 보아 경험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히로뽕 경험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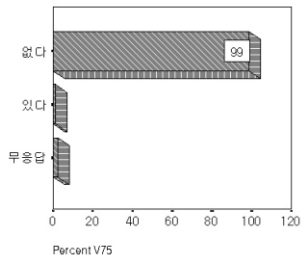
히로뽕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99.2%, 사용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0.8%로 파악되었다.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히로뽕을 경험하고 있으며 무관심으로 일관할 경우 확산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4) 엑스터시(MDMA)의 남용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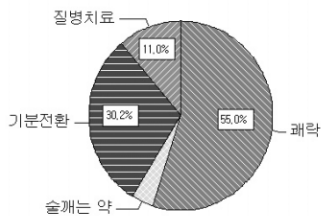
엑스터시(MDMA)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98.8%, 사용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2%로 파악되었다. 엑스터시는 주로 청년층에서 남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 기타(코카인, 헤로인 등) 약물의 남용여부?



기타 약물(코카인, 헤로인 등)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98.8%, 사용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2%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마약류 남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소수만이 경험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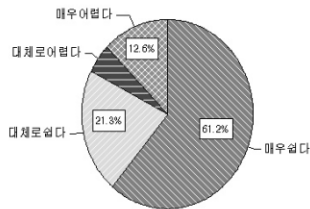
8) 마약류의 사용목적은?



마약류의 사용 목적이 쾌락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5.0%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스트레스 등의 기분전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 사람이 30.2%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질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1.0%, 나머지 3.8%는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개는 약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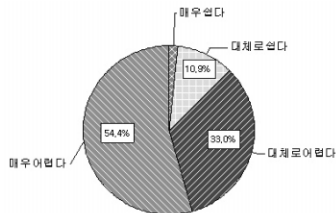
9) 마약류를 구입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는?

(1) 유해화학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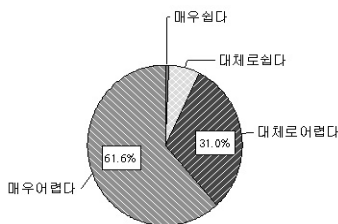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의 구입 용이성에 관하여 61.2%가 매우 쉽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쉽다가 21.3%, 대체로 어렵다가 4.9%, 매우 어렵다가 12.6%로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은 우리사회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대안이 필요하다.

(2) 대마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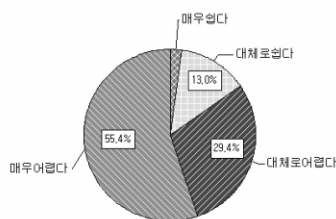
대마초의 구입 용이성에 관하여 54.4%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어렵다가 33.0%, 대체로 쉽다가 10.9%, 매우 쉽다고 대답한 사람은 1.8%로 나타났다. 쉽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마초를 일정한 루트를 통하여 쉽게 구입하여 애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히로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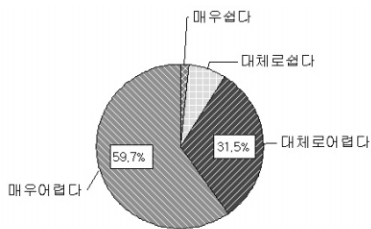
히로뽕의 구입 용이성에 관하여 61.6%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어렵다가 31.0%, 대체로 쉽다가 6.5%, 매우 쉽다고 대답한 사람은 0.8%로 나타났다. 히로뽕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비밀 루트를 통하여 구입하기 때문에 쉽다고 응답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엑스터시(MDMA) 구입의 난이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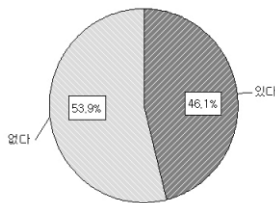
엑스터시의 구입 용이성에 관하여 55.4%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어렵다가 29.4%, 대체로 쉽다가 13.0%, 매우 쉽다고 대답한 사람은 2.2%로 나타났고, 2.2%는 엑스터시를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기타(코카인, 헤로인 등)의 약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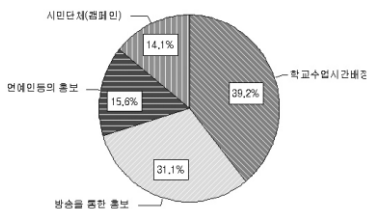
코카인, 헤로인 등의 구입 용이성에 관하여 59.7%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어렵다가 31.5%, 대체로 쉽다가 7.1%, 매우 쉽다고 대답한 사람은 1.7%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남용자 등은 고정된 루트를 통하여 공급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마약류 퇴치 및 예방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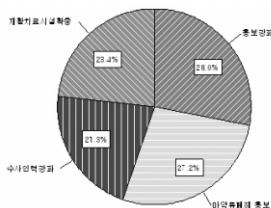
마약류 예방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있다'가 46.1%, 참여할 의사가 '없다'가 53.9%로 많은 사람들이 마약류 예방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1)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홍보 방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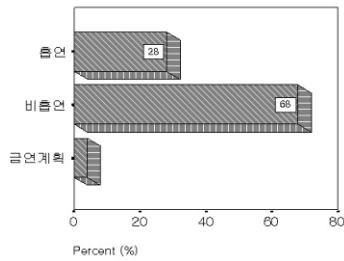
응답자의 39.2%가 초·중·고에 예방교육의 시간배정을 원했고,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에 31.1%, 연예인 및 체육인 등을 이용한 홍보가 15.6%, 시민단체 중심의 직접 캠페인이 14.1%로 나타나 시민단체 중심의 캠페인은 별로 실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전북지역의 선결과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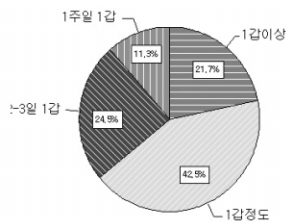
범도민적 홍보강화(28.0%), 범도민적 마약류 폐해 교육 강화(27.2%), 마약류 수요 및 공급 차단을 위한 수사 인력 강화(21.3%),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강화(23.4%)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4가지의 과제가 마약류의 확산방지에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13) 흡연 여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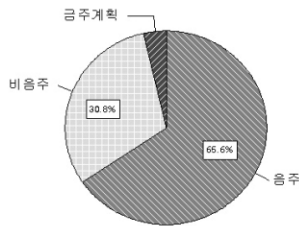
응답자의 28.0%가 현재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고 68.0%가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금연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3.9%로 조사되었다. 흡연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14) 하루 흡연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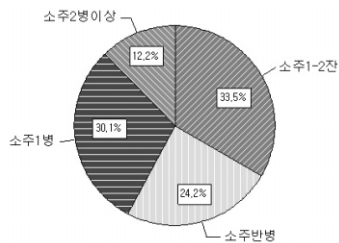
담배를 피우는 사람(714명)중 하루 1갑 이상 피운다고 응답한 사람은 21.7%, 1갑 정도가 42.5%, 2-3일에 한 갑 정도가 24.5%, 1주일에 한갑 정도가 11.3%라고 응답하였다. 흡연자의 1/2이상이 하루 1갑이상 피우는 것으로 흡연량이 중증(heavy smoker)에 해당한다.

15) 음주여부는?



현재 음주를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65.6%, 마시지 않는다가 30.8%이고 앞으로 금주할 계획인 사람이 3.5%인 것으로 조사되어 음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16) 음주량은?



음주하는 사람(1,544명)의 음주량은 소주 1-2잔 정도가 33.5%, 2홉 소주 반병정도가 24.2%, 2홉 소주 1병 정도가 30.1% 그리고 2홉 소주 2병 이상이 12.2%로 조사되었다. 음주자의 음주량은 하루 평균 소주 1병정도로 중증(heavy drinker)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치료가 요망된다.

17) 마약류에 관한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

(1) 청소년의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에 대한 인식정도는?

구 분	남	여
1. 심각하다	179명(15.1%)	147명(14.0%)
2. 보통이다	255명(21.4%)	184명(17.5%)
3. 심각하지 않다	189명(15.9%)	167명(16.0%)
4. 잘 모르겠다	563명(47.3%)	549명(52.4%)

청소년의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남/여 모두 비슷한 분포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청소년의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에 대한 생각은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성인의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는?

구 분	남	여
1. 심각하다	197명(16.6%)	175명(16.7%)
2. 보통이다	244명(20.5%)	175명(16.7%)
3. 심각하지 않다	170명(14.3%)	133명(12.7%)
4. 잘 모르겠다	579명(48.7%)	564명(53.9%)

성인의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심각하다는 남/여 모두 비슷한 분포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성인의 마약류 불법유통에서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남자는 20.5%로 여자의 응답률 16.7%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3) 주위에서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 사례의 경험유무는?

구 분	남	여
있 다	185명(15.6%)	80명(7.6%)
없 다	998명(84.4%)	964명(93.3%)

주위에서 마약류 불법유통 및 남용 사례를 본 일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있다’ 라고 응답한 남자는 남자 15.6%를 차지하였고, 여자는 7.6%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남자가 마약류 불법유통 및 남용 사례가 여자보다 더 많은 비율로 간접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 인식의 유무는?

구 분	남	여
1. 그렇다	233명(19.7%)	149명(14.2%)
2. 보통이다	325명(27.3%)	237명(22.6%)
3. 그렇지 않다	369명(31.0%)	405명(38.6%)
4. 잘 모르겠다	258명(21.7%)	255명(24.3%)

마약류 불법유통 및 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이상의 긍정응답은 남자가 47.0%, 여자가 36.8%의 비율을 보였다. 마약류 불법유통 및 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마약은 사용하다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구 분	남	여
그렇다	250명(21.0%)	220명(22.2%)
아니다	883명(74.2%)	769명(77.8%)

마약은 사용하다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자가 21.0%, 여자가 22.2%로 남자와 여자의 응답 분포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보아 마약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6) 주위에서 마약류를 남용하는 경우 관심의 유무는?

구 분	남	여
그렇다	154명(12.9%)	108명(11.0%)
아니다	970명(86.3%)	877명(11.0%)

주위에서 마약류를 남용하면 모르는척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자가 12.9%, 여자가 11.0%로 남자가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마약류에 한번 중독이 되면 마약류 특성상 독자적으로 끊기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사람의 비율이 모르는척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마약류 남용에 대한 공동체적 의식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7) 기회가 된다면 마약류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욕망의 유무는?

구 분	남	여
그 령 다	132명(11.8%)	80명(8.1%)
아 니 다	991명(88.2%)	907명(91.9%)

마약류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 중 남자는 11.8%, 여자는 8.1%의 비율이다. 남자가 여자보다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 다소 많음을 말해주고 있다. 마약류를 한번 사용해 습관이나 중독이 되면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유해화학물질 등이 마약류와 유사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여부는?

구 분	남	여
알고 있다	935명(81.7%)	826명(80.8%)
모르고 있다	210명(18.3%)	196명(19.2%)

유해화학물질 등이 마약류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녀 모두 비슷하게 약80%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르고 있다' 라고 응답한 사람도 평균 19%를 차지하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것으로 광범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9)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본 경험의 유무는?

구 분	남	여
있다	116명(9.9%)	65명(6.2%)
없다	1055명(90.1%)	970명(93.7%)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남자가 9.9%의 비율로 여자(6.2%)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사용해 본 경험에서 5%~10%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독 또는 습관성에 젖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절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10) 대마초를 사용해 본 경험의 유무는?

구 분	남	여
있다	33명(2.8%)	7명(0.7%)
없다	1130명(97.2%)	1023명(99.3%)

대마초를 사용해 본 경험은 남자가 2.8%, 여자가 0.7%의 비율을 나타냈다. 대마초를 경험해 본 사람의 비율은 낮지만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수치이다.

(11) 히로뽕을 사용해 본 경험의 유무는?

구 분	남	여
있다	12명(1.0%)	6명(0.6%)
없다	1150명(99.0%)	1025명(99.4%)

히로뽕을 사용해 본 경험은 남자가 1.0%, 여자가 0.6%가 사용해 보았다고 응답하여 낮은 비율이지만 우리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히로뽕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12) 엑스터시(MDMA)를 사용해 본 경험의 유무는?

구 분	남	여
있다	21명(1.8%)	6명(0.6%)
없다	1141명(98.2%)	1024명(99.4%)

엑스터시(MDMA)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남자는 1.8%이고, 여자는 0.6%로 나타났다. 적은 수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방치할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약물이다.

(13) 기타(코카인, 헤로인)을 사용해본 경험의 유무는?

구 분	남	여
있다	19명(1.6%)	8명(0.8%)
없다	1144명(98.4%)	1018명(99.2%)

기타 마약류(코카인, 헤로인 등)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남자가 1.6%, 여자가 0.8%로 매우 낮은 편이나 코카인, 헤로인 등은 흥분제이기 때문에 한번 확산되기 시작하면 걸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8) 마약류의 사용 목적은?

구 분	남	여
1. 쾌락, 성적쾌감	674명(57.5%)	538명(52.1%)
2.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개는 약	57명(4.9%)	27명(2.6%)
3. 스트레스 등의 기분전환을 위해	314명(26.4%)	351명(34.0%)
4. 질병의 치료	127명(10.7%)	116명(11.2%)

마약류의 사용목적은 ‘쾌락, 성적쾌감’이 남녀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등의 기분전환을 위해’라고 응답한 남자가 26.4%, 여자가 34.0%로 나타났다. 생명에 치명적인 마약을 쾌락이나 스트레스 해소로 사용하고 있어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19-1) 유해화학물질을 구입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는?

구 분	남	여
1. 매우 쉽다	758명(65.2%)	586명(56.8%)
2. 대체로 쉽다	214명(18.4%)	253명(24.5%)
3. 대체로 어렵다	70명(6.0%)	37명(3.5%)
4. 매우 어렵다	121명(10.4%)	156명(14.9%)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남자는 83.6%정도이고, 여자는 81.3%이다. 이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남용할 확률이 높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9-2) 대마초를 구입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

구 분	남	여
1. 매우 쉽다	30명(2.6%)	8명(0.8%)
2. 대체로 쉽다	141명(12.2%)	95명(9.4%)
3. 대체로 어렵다	405명(34.0%)	310명(30.5%)
4. 매우 어렵다	576명(48.4%)	603명(59.4%)

쉽게 구입한다는 남자는 14.8%이고, 여자는 10.2%로 나타났다. 이는 대마초가 비교적 쉽게

유통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마초의 유통과정에 대한 철저한 추적이 필요하다.

19-3) 히로뽕을 구입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

구 분	남	여
1. 매우 쉽다	13명(1.1%)	5명(0.5%)
2. 대체로 쉽다	83명(7.2%)	58명(5.7%)
3. 대체로 어렵다	383명(33.3%)	288명(28.4%)
4. 매우 어렵다	671명(58.3%)	662명(65.4%)

히로뽕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남자는 8.3%, 여자는 6.2%로 나타났다. 히로뽕도 대마초와 마찬가지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9-4) 엑스터시(MDMA)를 구입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

구 분	남	여
1. 매우 쉽다	36명(3.1%)	11명(1.1%)
2. 대체로 쉽다	182명(15.9%)	99명(9.8%)
3. 대체로 어렵다	329명(28.7%)	307명(30.3%)
4. 매우 어렵다	600명(52.3%)	597명(58.9%)

엑스터시(MDMA)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남자는 19.0%, 여자도 10.8%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른 마약류보다 유통이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 기타(코카인, 헤로인 등)를 구입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

구 분	남	여
1. 매우 쉽다	27명(2.3%)	9명(0.9%)
2. 대체로 쉽다	90명(7.8%)	64명(6.3%)
3. 대체로 어렵다	368명(31.9%)	315명(31.0%)
4. 매우 어렵다	667명(57.9%)	627명(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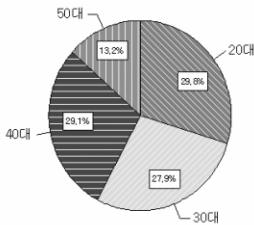
기타 마약류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남자는 10.1%, 여자는 7.2%로 나타났다.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9-6) 마약류 퇴치 및 예방교육의 기회가 있다면 참여 의사의 유무는?

구 분	남	여
있다	554명(47.0%)	470명(45.1%)
없다	624명(53.0%)	571명(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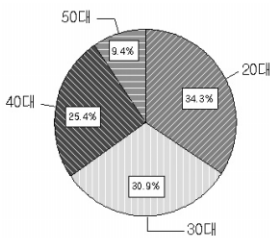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남자는 47.0%, 여자는 45.1%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교육에 대한 참여 의사는 비교적 낮다.

20) 마약류 불법유통 및 남용 사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연령별 분석(총 26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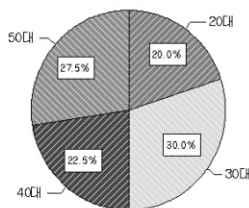
주위에서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 사례를 본 일이 있는 사람들을 연령대로 분석한 결과 20대가 2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가 29.1%, 30대가 27.9%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마약류에 대한 불법 유통 및 오·남용이 20대에서 40대까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21) 유해화학물질을 경험한 사람들의 연령별 분석(총 18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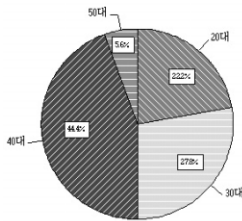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남자가 9.9%의 비율로 여자들(6.2%)보다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남자의 경험 정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본 경험에서 5%~10%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보았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2) 대마초를 경험한 사람들의 연령별 분석(총 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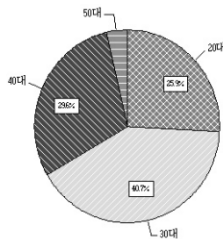
대마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연령은 20대에서 50대까지 약 20%이상씩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마초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8%라는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연령별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특정 연령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연령에서 경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히로뽕을 경험한 사람들의 연령별 분석(총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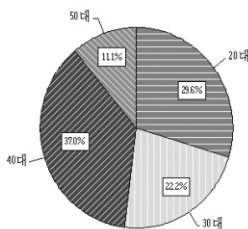
히로뽕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연령대로 분석한 결과 40대가 44.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30대가 27.8%, 20대가 22.2%의 분포를 보였다. 히로뽕을 사용해 본 사람은 전체 응답자 2,239명 중에 0.8%인 18명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지만, 히로뽕을 경험한 연령은 비교적 고루 분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24) 엑스터시(MDMA)를 경험한 사람의 연령별 분석(총 2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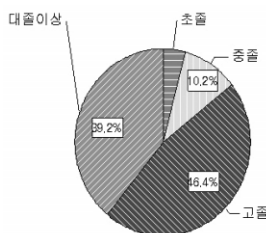
엑스터시(MDMA)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연령을 분석해 본 결과 30대가 40.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30대가 29.6%, 20대가 25.9%의 분포를 보였다.

25) 기타(코카인, 헤로인)을 경험한 사람들의 연령 분석(총2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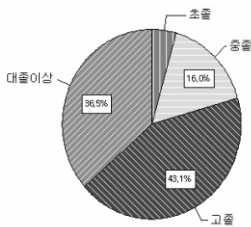
기타 마약류(코카인, 헤로인)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연령을 분석 결과 40대가 37.0%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9.6%, 30대가 22.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마약류(코카인, 헤로인)를 사용해 본 사람들의 연령대도 특정한 연령대가 나타나지 않고 전 연령에서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6) 마약류 불법유통 및 남용 사례를 경험한 응답자의 학력정도 분석(총 26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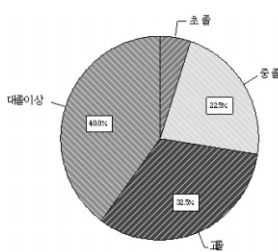
주위에서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 사례를 본 일이 있는 사람들을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46.4%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도 39.2%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7) 유해화학물질 등을 경험한 사람들의 연령별 응답(총 18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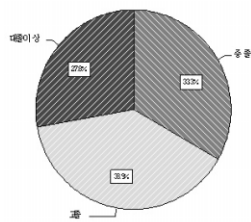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학력에 대한 분포는 고졸이 43.1%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 36.5%이고, 중졸이 16%를 차지하고 있다. 사용한 사람들의 학력은 대체로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80%로 고학력자가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 대마초를 경험한 사람들의 학력분석(총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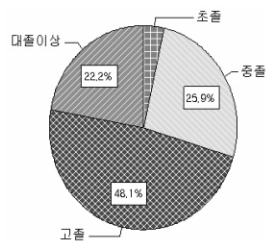
대마초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졸이상이 40.0%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고졸이 32.5%, 중졸이 22.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마초를 사용해 본 사람들의 연령은 전 연령대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마초와 같은 마약류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특정연령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보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9) 히로뽕을 경험한 사람들의 학력 분석(총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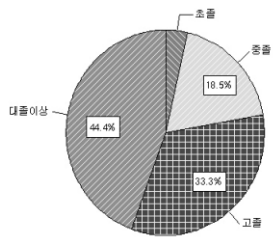
히로뽕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학력을 분석해 본 결과 고졸이 38.9%로 가장 많았고, 중졸이 33.3%, 대졸이상이 27.8%로 나타났다. 히로뽕을 사용해 본 사람들의 학력은 중졸 이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0) 엑스터시(MDMA)를 경험해 본 사람들의 학력 분석(총2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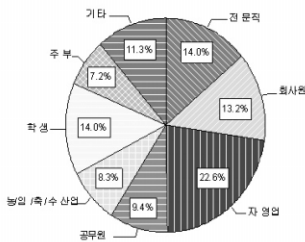
엑스터시(MDMA)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학력을 분석해 본 결과 고졸의 학력자가 48.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중졸의 학력자가 25.9%,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22.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엑스터시(MDMA)를 사용해 본 사람들의 학력에서는 두드러진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졸이상의 학력자들이 비교적 경험의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1) 기타(코카인, 헤로인)을 경험한 사람들의 학력 분석(총 2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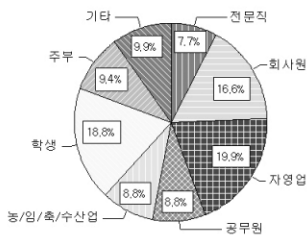
기타(코카인, 헤로인)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학력을 분석해 본 결과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44.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고졸이 33.3%, 중졸이 18.5%순으로 나타났다.

32) 마약류 불법유통 및 남용 사례를 경험한 사람의 직업 분석(총 26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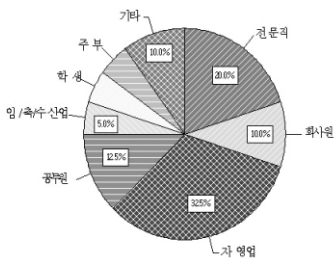
마약류 불법유통 및 남용 사례를 본 일이 있는 사람들의 직업별 분석은 자영업이 22.6%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14.0%, 회사원 13.2%의 분포를 보였다. 마약류 불법유통 및 남용 사례를 경험한 사람들의 직업분포는 8가지 종류의 직업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정직업의 종사자들에서만 마약류 남용사례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유해화학물질을 경험한 사람들의 직업별 분석(총 18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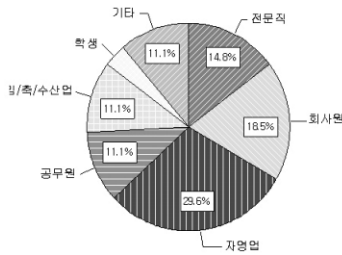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직업분포는 자영업이 19.9%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18.8%, 회사원이 16.6%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직업분포도는 직업에 관계없이 남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4) 대마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직업별 분석(총 40명)



대마초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자영업이 32.5%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전문직 20.0%, 공무원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35) 엑스터시를 경험한 사람들의 직업별 분석(총27명)



엑스터시(MDMA)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직업을 분석해 본 결과 자영업이 29.6%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회사원이 18.5%, 전문직이 14.8%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도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약류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분석의 종합적 고찰

1)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인식태도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인식에서 51.1%가 모르겠다고 대답해 전북도민은 청소년의 마약류 남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인의 경우 49.8%가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참조하여 판단한다면 전북도민은 마약류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또는 전북지역에는 아직 마약류가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되지 않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2) 마약류 유통사례 경험 유무

응답자의 12%가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 사례를 보았다고 대답하였으며 세대별 경험 비율이 20대 29.8%, 30대 27.9%, 40대 29.1%로 전세대가 매우 유사하게 조사되어 전북지역은 세대별로 유사하게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며,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의 인지유무에서 17.1%는 '그렇다' 25.2%는 '보통이다' 57.7%는 '그렇지 않다' 또는 '잘모르겠다' 는 대답을 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약류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마약류에 대한 도민의 성향

주위 사람들이 마약류를 사용한다면 87.5%는 ‘모르는 척 할 것이다’, 12.4%는 ‘적극말리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 마약류가 인체 또는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마약류를 사용해 보고 싶은 욕망의 여부에 대해서는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회가 있다면 하겠다고 대답하고, 89.9%는 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마약류의 유혹에 언제든지 빠질 위험성을 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마약류에 한번 빠지면 끊기가 어렵다는 사실의 인식여부에 대해서는 끊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78%,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22%로 마약이 위험물질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사람들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유해화학물질의 실태 동향

유해화학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78.7%가 잘 알고 있으며, 18.1%는 모른다고 대답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해화학물질의 경험의 유무에 대해서는 8.2%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관계기관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마약류 경험자의 실태 동향

마약류 경험 유무에 대한 조사에서 대마초는 1.8%, 히로뽕 0.8%, 엑스티시 1.2% 기타약물(헤로인·코카인)의 경우 1.2% 등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약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마약류에 빠져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당한 수준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대별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대 34.3%, 30대 30.9%, 40대 25.4%, 50대 9.4%로 나타나 20~30대에서 가장 많이 마약류에 빠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마약류의 사용목적은 쾌락을 위하여 55%, 기분전환 30.2%, 질병치료 11%, 술 깨는 약으로 3.8% 등으로 조사되어 마약류를 성적쾌락의 도구로 가장 많이 상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 마약류 구입의 난이도

마약류의 구입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61.2%가 쉽다, 21.3%는 대체로 쉽다고 대답해 대마초는 일정한 루트를 통하여 공급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20%, 30대 30%, 40대

22.5%, 50대 27.5%로 전 연령층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히로뽕은 대체로 쉽다 6.5%, 매우 쉽다 0.8%이고 연령별 분포는 20대 22.2%, 30대 27.8%, 40대 44.4%의 분포이고, 엑스타시의 경우 대체로 쉽다 13%, 매우 쉽다 2.2%, 연령별 분포는 20대 25.9%, 30대 40.7%, 40대 29.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 약물에 대해서는 대체로 쉽다 7.1%, 매우 쉽다 1.7%이고 연령별 분포는 20대 29.6% 30대 22.2%, 40대 37%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마약류 구입의 난이도를 분석해 볼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미 마약류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7) 마약류 퇴치교육 참여 여부

마약류 퇴치 교육이 있을 경우 참여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참여 하겠다 46.1%, 참여하지 않겠다 53.9%로 나타났으며, 마약류 확산방지 홍보방안으로 초·중·고에 예방교육 시간 배정을 해야 한다 39.2%, 방송매체의 이용 31.1%, 연예인 및 체육인 이용 15.6%, 시민단체 캠페인 14.1% 등으로 나타났으며, 마약류 확산 방지의 선결과제로는 범도민적 홍보 28%, 교육 27.2%, 수사 인력강화 21.3%, 중독자 치료 및 재활 23.4%로 조사되어 마약류 퇴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8) 흡연과 음주 동향

응답자의 28%인 714명이 흡연을 하고 있으며 이중 3.9%는 금연예정이라고 대답해 금연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흡연량에 대해서는 1일 1갑 이상이 21.76%, 1일 1갑은 42.5%, 2~3일에 1갑 24.5%, 1주일에 1갑 11.3% 등으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1/2이상이 하루 1갑 이상으로 중중에 해당한다. 음주의 경우 응답자의 65.6%인 1,544명이 음주를 하고 있으며 이중 3.5%가 금주 예정이고 소비량은 1일 소주 1~2잔 33.5%, 2홉 소주 반병 24.2%, 2홉 소주 1병 30.1%, 2홉 소주 2병 이상 12.2%로 나타났으며 음주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흡연은 흡연하면서 계속해서 권할 수 없으나 음주는 마시면서 계속해서 권할 수 있기 때문에 금주는 사실상 어렵고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9) 마약류 경험자의 학력 동향

마약류 불법유통 및 남용사례를 경험한 학력은 고졸이 46.4%로 가장 많고, 대졸 39.2%, 중졸 10.2% 등이고, 마약종류별 학력으로는 대마초 경험자 40명중 대졸 40%, 고졸 32.5%, 중졸 22.5%, 히로뽕 경험자 18명중 대졸 27.8%, 고졸 38.9%, 중졸 33.3%, 엑스타시 경험자 27명중 대졸이상 22.2%, 고졸 48.1%, 중졸 25.9%, 기타 코카인·헤로인 경험자 27명중 대졸이상

44.4%, 고졸 33.3%, 중졸 18.5%, 유해 화학물질경험자 181명중 대졸 36.5%, 고졸 43.1%, 중졸 16%로 고졸 이상의 학력이 80%로 고학력자가 마약류에 쉽게 빠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10) 마약류 경험자 직업별 동향

마약류 불법유통 및 남용자 256명 중 자영업 22.6%, 전문직 14%, 회사원 13.2% 이고, 유해화학물질 경험자 181명중 자영업 19.9%, 학생 18.8%, 회사원 16.6%, 대마초 경험자 40명중 자영업 32.5%, 전문직 20%, 공무원 12.5%, 히로뽕 경험자 18명중 자영업 33.2%, 공무원 22.2%, 회사원 16.7%, 엑스터시 경험자 27명중 자영업 29.6%, 회사원 18.5%, 전문직 14.8% 등으로 나타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마약류에 빠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IV. 정책적 대안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조사 둘째, 교육과 홍보 셋째, 치료와 재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조사는 어떠한 집단에서 어떠한 마약류를 남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교육과 홍보는 마약류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이해시키고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치료와 재활은 남용약물에 대한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의학적으로 치료하고 사회적으로 적응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로 나누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과 환경으로 나누어 대안을 마련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3개항으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실 마약류 문제에 대해서는 성인의 경우보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중요하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마약류에 몰입하게 될 경우 장차 더 큰 사회문제 또는 국가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청소년 문제

청소년기는 제2의 탄생기로서 학교와 사회 등 보다 큰 세상의 조직 속에서 육체적·심리적 갈등과 번민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청소년은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이중적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정신적 부담을 지게 된다. 이렇게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만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마약류 및 유해화학물질 등은 한 번쯤 맛보고 싶은 매력적인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의 마약류 등 문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국가적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등이 이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자각하고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청소년 문제를 단기적이고 1회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교육적·환경적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등 정책적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교육적 대안

(1) 가정교육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기본적인 소양을 인지하며 배우는 성장의 장이다. 청소년의 기본적 인격 형성은 가정에서 습득되기 때문에 부모와 가족의 애정에 기초한 교육은 청소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마약류 등에 대한 예방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 대한 마약류 등 기초교육이 실시되어 부모로 하여금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대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 등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 실행의 첫 단계로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회의 개최시 마약류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에서 학부모가 1차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등이 마약류 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통하여 차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학교교육

학교는 현대사회의 청소년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질서의 유지와 안정에 절대적인 가치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육은 교과과정에서 단순한 지식을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가르침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교사를 통한 마약류 등에 대한 교육은 가정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중등학교에서 보건·체육 교사 등이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대중매체의 이용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인터넷, TV, 휴대전화, 라디오 등 대중매체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강력하여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역시 이러한 대중매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심과 호감을 갖고 있다.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수적으로 자막이나

짧은 시간에 마약류 등의 폐해에 대하여 교육을 할 경우 자연스럽게 마약의 폐해를 인지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은 초등학교 학생부터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청소년 전문 사이트를 개설하고 많은 청소년이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 가지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재고하여야 한다. 청소년 등이 즐기는 퀴즈, 스포츠, 영화, 쇼, 연속극, 음악 등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감안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교육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전문단체 교육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 기구(NGO)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알코올 상담센터 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초·중등학교에서 특강 형식으로 년 1~2회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 국민적 사회운동으로 전개 해 나감으로서 청소년 등이 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민간 전문 단체로 하여금 공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도록 할 경우 특수한 전문가로 하여금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및 예산의 배려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전문가를 육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설적인 상담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환경적 대안

(1) 청소년 전용여가시설의 확대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 학교, 사회 등의 환경이다. 본 설문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마약류 등에 유혹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은 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청소년 등이 건전한 오락 또는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마약류 등에 유혹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배려가 없는 사회에서 성장하다 보면 자아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청소년 등이 마음 놓고 여가를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전용시설을 확대 보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 전용 시설로는 공연장, 운동장, 도서관, 전시관 등을 설치하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경우 건전한 생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 등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2) 유해업소의 정리

청소년을 위한 환경조성은 퇴폐 및 향락업소의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위한 환경정비는 학교주변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오래 전부터 민·관 합동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사실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활동범위가 학교주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소년 대상업소 혹은 유흥퇴폐업소의 업주나 종업원 등을 상대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육과 계도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단절시켜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등이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등의 접근이 불량친구 등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수록 유혹에 많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대응해야 한다. 청소년 등이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사이버 게임, 컴퓨터 오락 등 전용 시설과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유해업소를 정리하여 건전하지 못한 업소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청소년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⁷⁾

2. 성인의 문제

마약류의 예방은 교육과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중독자는 치료와 재활이 가장 중요하다.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은 의학적으로 치료하고 사회적으로 적응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부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교육과 홍보도 정부차원에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NGO에 예산지원을 일부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소나 재활소도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차원의 전문 치료소는 국립부곡병원 부설 약물중독진료소가 있으며 국립 서울병원 등 22개의 병원에 의뢰하여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목이 두려워 치료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지사업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마약중독 회복을 위한 중간의 집 송천쉼터, 약물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응훈련과 재활프로그램인 햇살교실, 약물위험집단 대상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퇴교실 등이 있을 뿐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마약류 예방과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각 시·도에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개발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상시 국민을 상대로 교육과 계몽을 할 수

7) 손봉선, 2002, 268면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속과 처벌만을 가지고는 마약류 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1) 공급과 수요의 억제

우리나라의 마약류 정책은 공급에 대한 통제와 수요에 대한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적 주요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마약류 등의 불법수익의 재산환수도 규제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의 공급이 다소 위축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며 여전히 정책의 중점은 강력한 단속에 의한 공급의 통제에 두고 있다.⁸⁾

마약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마약류 사범의 근절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다른 해결책들과 병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마약류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마약류 남용의 해악에 대하여 일반 시민이 이해를 갖게 하고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공동체를 통하여 마약류 남용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의 합의와 협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 남용약물의 신속한 규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약물의 규제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선진국 또는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규제하지 않는 약물일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약물이 문제가 있다면 즉시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약물을 선진국이나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규제하지 않는 것은 전 국민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러한 약물이 마약의 특성인 내성, 의존성, 금단증상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더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PPA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의 경우 미국 FDA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된 후 4년이 지나서야 판금조치를 취한 것은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남용되는 약물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남용되고 있지 않은 약물이 우리나라에서는 남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세계보건기구의 규제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신속한 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인 것이다. 선진외국의 경우 합법적인 약물의 구입보다는 불법적인 약물의 구입이 훨씬 용이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약물을 남용한다.

8) 경향신문, 2003. 2. 15. 서울지검 마약류수사부는 2. 14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유사마약류 거래 사범들의 재산을 추적, 예금 및 토지 등 모두 20여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최근 가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히로뽕 등 마약류가 아닌 유사마약류 범죄 수익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범죄행위로 직접 챙긴 재산은 물론 범죄행위의 보수, 범죄수익을 처분해서 생긴 재산 등' 간접적인 범죄수익 '까지 모두 몰수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외마약 등 합법적인 약물을 남용한다. 따라서 남용되는 합법적 약물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⁹⁾

3) 치료와 재활대책

치료와 재활은 치료와 보호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치료 후에는 관계기관에서 일정기간 관리를 하여 치료 후에 재범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의 치료율이 20% 미만에 그치고 재범율이 80%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경우를 보면 전체인구의 약 10%가 코카인의 영향을 받거나 중독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¹⁰⁾ 기타 마약류에 중독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의 실정에 따라서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소를 설치하고 상담과 치료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당국에서도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소를 설치하고 마약류에 중독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출입하면서 상담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치료와 재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V. 결 론

우리나라는 비교적 마약의 안전지대로 인식되었으나, 지구촌 시대의 무 국경화, 마약의 저렴화, 국제 마약조직의 집중적인 연계 등으로 마약의 상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연령층 역시 낮아지고 있다. 마약류 등의 남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와 국가 등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다. 더욱이 청소년기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은 제2의 탄생기이기 때문에 약물남용 등 유해한 행위에도 쉽게 젖어 든다. 조사결과 청소년의 마약류 불법 유통 및 오·남용에 대한 인식정도는 51%로 과반수가 잘 모른다는 결론이다. 이는 평소 청소년의 마약류 남용의 심각성에 대해서 부모나 기성세대에서 무관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약은 사용하다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77%로 쉽게 끊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마약류에 쉽게 젖어들 수 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로 이

9) 주왕기, 1993, 234면

10) 최영인·이종구, 2004, 20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기회만 오면 마약류를 시험해 볼 것이고 일단 시험을 해 보면 습관 또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예방교육은 기회가 있어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53%로 우리사회에서 마약류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변에서 마약류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무관심한 사람들이다. 홍보방안 중 초·중·고 수업시간 배정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39%로 역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책임 있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거리 캠페인은 14% 정도만 지지한 것으로 보아 거리에서의 홍보나 캠페인은 큰 효과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리 캠페인은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형식적이고 캠페인 실적을 남기기 위하여 사진이나 찍고 보고하는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 필로폰 사용 경험자는 18명, 엑스터시 경험자는 27명으로 작은 수이지만 방심할 경우 마약류의 확산 정도로 보아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내 20세 이상 성인들에 대한 의식·실태 조사는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한 것으로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시·도별로 동시에 마약류에 대한 의식조사를 할 경우 국가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 자료로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마약중독의 폐해는 강도, 절도, 폭력, 교통사고, 성범죄, 학습능률의 저하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본능까지도 잃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의 마약류 등 남용문제도 어느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마약류의 남용이 없는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남용 약물을 통제하고 남용자를 단속하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는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의 공동체적 유대감으로 마약류 예방과 퇴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구성원 전체가 마약류 등 남용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여 직접 예방과 홍보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경찰청(2004).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2004).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서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손봉선(2002). 「청소년 마약류 남용 실태조사 및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학회보

신동일(2004). 「주요국가의 마약류 통제체제」 서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왕기외(1993). 「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대책」 서울: 한국약물남용연구소

최영인·이종구(2004). 「미국의 노상범죄와 마약의 관련성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마약학회

경향신문, 2004. 7. 17.

세계일보, 2001. 8. 21.

일본 세계일보, 2001. 8. 18.

<http://www.joins.com/LA>

<http://www.khan.co.kr/news>